

■ 우리구 사람들 - 부산과학커뮤니케이터 이르고 있는 장혜원·김지연·최인희 씨

최고 평생학습동아리로 선정돼 너무 기뻐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산과학커뮤니케이터 임원진이 회원들과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인희·장혜원·김지연 씨.

부산과학커뮤니케이터가 최근 부산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의 평생학습동아리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동아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장혜원 회장을 비롯한 김지연·최인희 간사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혜원 회장은 "이번 평가에서

매월 두 차례 구정 대화의실에 모여 업무 연찬회를 통해 교재 연구는 물론 재료의 구매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 정보를 나누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우리 동아리가 부산의 평생학습동아리 중 최고 평가를 받게 돼 회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선

부산평생교육진흥원 평가서 A등급 평가 받아 과학장사 31명 업무 연찬 통해 교육의 질 높여

정 소감을 밝혔다.

동아리 소개를 부탁하자 최인희 간사는 "부산과학커뮤니케이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남구와 부산 울산경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과학장사로 양성한 여성 31명으로 구성됐다"며 "회원 대부분이 일선학교와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출강하는 베테랑급 강사들"이라고 밝혔다.

사실 강사들 대부분은 30~40대 이 곳에서 활동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

모두 이공계 대학출신으로 경력이 단절됐었다가 남구가 방과후학교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됐다.

김지연 간사는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힘쓰다가 남

구가 마련한 양성교육을 통해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에도 출강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보람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3인방은 이번 우수동아리 선정을 계기로 어린 아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해오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특히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면서 받은 지원금 150만원으로 과학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찾아 무료 과학교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 사람과 사람

과학인명사전에 등재



성을 인정받아 '마르퀴즈후 2011' 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해군장병 대상 특강



를 방문하여 장병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독도 사랑 주재 강연



공원에서 독도와 관련한 주제 강연했다.

남구문인 왕성한 창작열 불태워

수필가 옥치부·김정화 씨 책 펴내

남구문인회 소속 회원들이 잇따라 수상집과 수필집을 펴내며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옥치부(문헌2동·80) 수필가는 최근 수상집 '누님의 텃밭(디자인세상)'을 발간했다.

책에는 자신을 문단으로 이끈 작품 '누님의 텃밭' 등 5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일상의 감정이나 사색의 조각을 모아 책으로 펴내게 됐다"며 "잠 시도 잊지 못하는 누님과 나의 혈육들을 오래 보듬고 싶은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문학평론가 남송우 교수는 작가의 글에 대해 남다른 열정으로 마지막

타는 석양의 붉은 노을처럼 빛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옥치부 선생은 1931년 거제시에서 출생했으며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수필 '누님의 텃밭'으로 등단했다. 이후 가산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월간문학 부산동인회장, 불교문학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화(용호2동·47) 수필가는 자신의 첫 수필집 '새에게는 길이 없다(수필과 비평사)'를 상재했다.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옥치부



김정화

육성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돼 이번 수필집을 펴낸 작가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성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6년 '수필과 비평'지에 '겨울 소리'가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부경수필문학회, 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원 등으로 문필활동을 하고 있다.

박양근 교수는 작가론을 통해 그의 작품은 눈물 냄새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읽어갈수록 찰찰 차오르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밤새도록 터트리는 꽃망울의 진동도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몸을 때려 아픔을 물리치는 산사의 종 같은 울림통, 그것이 김정화 작가의 작품 본성이라고 평했다.

■ 우리구 문화공간-대연5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대연5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국제 청소년 2(대표 김준호교수)의 부설기관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다.

지난 해 3월 한글교실 개강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국어(주3회), 영어(주1회)와 수학(주1회), 컴퓨터(주1회)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과 조선족 그리고 한족, 필리핀과 태국 출신 등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공부하고 서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모두 각 과목 전공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맡고 있다. 컴퓨터 수업의 경우 부산폴리텍대학교에서 노트북을 지원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 중의 하나다.

센터가 생길 때부터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센터의 총 운영을 맡고 있는 전연숙 실장은 처음 센터를 맡았을 때를 회상하며 지금은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 정신이 없다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과 7월 이틀간 밀양에서 다문화가족 캠프를 열었다.

한글·영어·요리교실 운영, 남편교육도 실시 부산폴리텍대와 연계 전문 직종 취업 돕기도

하지 못했던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베트남 출신의 김화(김만동)씨는 "다른 곳에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만큼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은 데는 없었어요.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라며 서툴지만 자신 있게 얘기한다.

내년에 대학 입학은 목표로 9월에 치르는 한국어능력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호티 과(대연동)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하고 내년에는 꼭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 학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전연숙 실장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대부분이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취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서 전문 직종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부산폴리텍대학교와 연계해서 기술 훈련을 통해 전문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센터에서는 한글, 영어, 수학 외에도 월요일마다 요리교실을 열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남편 교실을 열고 있다. 남자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 남편교실은 한국인 남편들의 호응이 좋아 참여인원이 아주 많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과 7일에는 밀양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 캠프도 다녀왔는데, 캠프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도 다시금 확인하고 한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뜨거운 여름 계곡에서 시원한 물 놀이도 하며 함께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간에도 친분을 다지는 친목의 시간이 되었다고.

지난 7월 22일에는 1학기 종강식을 가졌고, 오는 8월 29일 중도입학 수강생들의 수업과 2학기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070-7561-1388
cafe.daum.net/globy21
류진아 기자

정확한 업무파악이 친절의 시작

오 록 드 친절지기 대연4동 이용 건 씨

"공무원들은 불친절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은연 중 가지고 있었습니.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였지만 친절하게 잘 처리 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대연동에 사는 정갑수씨는 무더위를 날려 버릴 만큼 큰 감동이었다고 친절열서를 보내왔다. 또한 고선주씨는 민원서류 발급 차 방문했다. 밝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 이용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같고 씩씩한 청년으로서 아주 보기가 좋다고.

민원인들의 칭찬을 받은 이용건(지방행정서기보·30)씨는 지난해 10월 대연4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이다. 등·초본 인감제출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타고난 밝은 성격과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직장 업무에 또 그대로 적용되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때론 민원인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최선을 다해 처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억지가 통하는 일은 없으며 차근차근 설명하며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그는 공직생활의 새내기로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기본이며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된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



웃음 띤 얼굴 긍정적인 사고

몸에 밴 새내기 공무원 칭찬 자자

과 매일 접하다보니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대연4동주민센터는 직원 모두 친절마인드가 몸에 배어있다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돌린다.

그는 "항상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꿈을 품는다"라며 작은 포부를 밝혔다.

최정순 기자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 강의!!

제25기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가을학기(주.야간반)신입생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 17호인 아름다운 절 부산 남구 황령산 성암사와 부산불교 교육의 명문인 경남불교대학에서 제25기 가을학기(주.야간반)수강생을 접수합니다.

경남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삶의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학교 해탈의 도량입니다.

현재 불교방송 수요법문을 진행하시는 웅현스님의 명강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불자들만이 아닌 무종교인, 타종교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지혜의 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경남불교대학에서 지혜와 공덕의 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교리반]
교육대상 :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수업기간 : 9월~2월 (6개월)
수업일시 : 낮 반 - 화, 목 (오후 2시~4시 30분)
 저녁반 - 수, 금 (오후 7시 30분~10시)
교육내용 : 불교 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참선수행법, 불교신행, 생활의기도방법, 사찰에서의 기본예절, 생활의 지혜 등

[경전연구반] (3개월)
교육내용 : 반야심경,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경, 아미타경, 신심명

입학식 : 9월 25일(일) 오후 2시

문의 : 성암사 종무소 635-3744~3

중증음식 연구원(원장 한복례) 펌백·이바지 과점 수료

실제 요리 사진입니다!!!

제사·폐백·이바지 음식

예약문의 626-0662

홍동백서 위치 : 남천동 해변시장

집안 풍습에 따라 맞춤형 주문 가능합니다 //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들어 당일 배송

웃음치료와 유머화법「조상영 웃음연구소」수강생 모집

웃음박사 조상영 특별강연 접수중(행사, 연수, 모임 등)

- * 현재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웃음치료과정 지도교수
- * 스포츠서울 2011년 웃음혁신리더 명강사 선정
- * 뉴스메거진 2011년 웃음으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수강시간안내

구분	강의 시간
월요일 오저반	오전 10시30분~
월요일 저녁반	오후 7시~
가족 웃음반	토요일 오후6시~

* 수료증 수여, 웃음치료사, 유머화법지도사 자격증 취득가능 *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cafe.daum.net/johahahoho)
 조상영 웃음연구소 : 611-3600, 010-4567-2233(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정문 맞은편 4층)

Willis Hospital

중증·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